

2018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메시지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

성경 말씀: 창 2:7-9, 시 27:4, 36:8-9, 43:4, 51:12, 사 61:10, 램 15:16, 빌 4:11-13

I. 주님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누려 그분과 똑같이 되게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빌 2:8-11, 참고 고후 5:21.

A. 그분은 영광과 거룩의 주님이시며 높고 고귀하시지만, 또한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를 좋아하시며, 우리를 그분께 이끌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을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셨다—시 43:4, 고전 15:45 하, 약 4:7-8 상.

B. 아가서에 있는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솔로몬의 복사관이며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되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을 묘사한다—아 1:1 (회복역 각주 1 읽기), 6:13

II.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생명이시다—창 2:7-9, 계 22:2, 14, 요 14:6 상, 10:10, 고전 15:45 하, 골 3:4.

A.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요 5:26, 골 3:4.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도로 주관적이심을 뜻한다—요 1: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롬 8:10, 6, 11.

2. 믿는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타고난 생명과 구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a.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갈 2:20.

b. 이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다—요 11:25.

c.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골 3:3, 마 6:1-6, 16-18.

B.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함을, 즉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분을 살아야 함을 강하게 가리킨다—골 3:4 하.

1. 그리스도는 반드시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골 3:4, 고전 15:45 하, 롬 5:10, 17.

2.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살아낸 자연스런 결과이다—골 3:3-4, 10-11, 엡 2:15, 4:22-24.

C.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성숙에 이르도록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교회의 기쁨과, 몸의 기쁨과, 최종적으로는 한 새사람의 기쁨으로 전진할 것이다.

D. 무한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가장 높은 생명이 되실 때, 우리는 무한히 높은 표준의 사람들이 된다—눅 6:35, 단 3:26.

1. 우리는 단지 사람으로서는 소유할 수 없는 고귀함과 거룩함을 소유한다.

2.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높은 사람, 무한한 사람이다. 그는 측량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 자신인 가장 높은 생명을 갖고 있다—비교 빌 1:19-21.

3.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숨(요 20:22)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때든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유용하시다(애 3:55-56, 고전 1:2, 살전 5:17).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III.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남편이시다.

- A.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결혼이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속하신 사람들과 결혼하신다—계 21:2, 9.
- B.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은 신랑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드신다(3:29, 엡 5:25-27).
- C.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고전 6:17)은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연결되는 것과 같다(사 54:5, 62:5, 고후 11:2).
- D.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어떤 다른 길도 이처럼 안전하고, 풍성하며, 누림으로 충만하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만족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먹이고 목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과 동역한다—요 14:21, 23, 21:15-17, 비교 히 13:20, 벧전 2:25, 5:4.

IV.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음식과 음료이시다.

- A.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의 실재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며 산떡이시다—출 16:14-18, 요 6:31-35, 48-51, 57, 63, 67-68.
- B. 광야에 있던 영적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이들의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명의 물을 흘러 내보내도록 하나님께 매 맞으셨고 갈라지셨다(출 17:6, 요 19:34).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는 그 영을 상징하는데,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음료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나오셨다(요 7:37-38, 고전 12:13).
- C. 주님의 상에서 주님은 떡에 관해 “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마 26:26)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잔에 관해 또한 “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 26:27-28).
 - 1. 주님은 마치 “ 여러분은 반드시 나를 여러분들의 누림으로서 여러분들 안으로 취해야 합니다. 참되게 나를 기념하는 것은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 2. 그분은 마치 “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의 음식과 음료가 되는 것을 허락할 때, 여러분은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비교 시 36:8-9.

V.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처소이시다.

- A. “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 즉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충만한 체험이다—시 90:1.
- B. “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 91:1.
- C. 우리는 주님의 처소이며, 그분은 우리의 처소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요 15:4, 비교 엡 2:21-22.
- D.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린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온 존재를 누리신다—요 15:4, 8:31, 15:7.

VI.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다.

- A. “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8:12.
- B. “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1:5.
- C.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때, 혹은 그분으로부터 끊어질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VII. 주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힘과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인도이시다.

- A.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니시요 나의 방패이니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 18:1-2, 비교 창 15:7.
- B.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그분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이시다(느 8:10, 사 51:12). 그분의 어떠한 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 C.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인도와 지시를 받고 나아갈 길을 갖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우리의 여행 지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취할 수 있다—롬 8:14, 히 11:8.

VIII. 열매 맺음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A.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어떤 열매도 가지들의 일의 결과가 아니다. 가지들은 단순히 수액, 즉 나무의 풍성들을 흡수하며, 열매는 맺히고 자라게 된다.
- B. 신성한 포도 나무의 가지들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는 것은 기쁨의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기뻐하는 생활의 결과이다—요 15:11.
- C.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주의하는데, 이 체험과 누림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수 있도록 기쁨을 이끌어 온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책이다—빌 1:4, 18, 25, 2:17-18, 28-29, 3:1, 4:1, 4, 비교 례 1:1.

IX. 기도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A.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 존재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골 1:27, 딤후 4:22, 롬 8:6.
- B. 최고의 기도는 주님을 흡수하는 것이다—골 2:7:
 - 1.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존재를 흡수하기 위해,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실로 돌이키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의 문제이다—비교 눅 10:38-42.
 - 2.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 C. 우리는 기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골 1:12, 2:6-7, 4:2.
 - 1.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하며 흡수하기 위해 시간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눅 8:13, 마 14:22-23, 6:6.
 - 2.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아침 일찍 그분과 만날 뿐 아니라, 또한 빛으로 충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빛나가게 하거나 점유하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사물들이 없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잠 4:18, 출 33:11 상, 34:3-4, 막 1:35.
 - 3.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강이 되어 우리를 공급할 것이다—히 4:16, 비교 계 22:1
- D.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골 4:2, 단 6:10.
 - 1.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로서 우리는 타락한 우주 전체가 우리를 대적하며, 특히 우리의 기도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도에 저항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바깥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안에 있다—마 26:41.
 - 2.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조류, 곧 풍조를 거슬러가는 것이다—눅 18:1-8.
- E.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단 6:10, 행 12:5, 12.
- F.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엡 6:18, 딤후 4:7, 딤후 1:7, 골 1:3, 9.

1. 우리는 자신을 주님과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다—살전 5:17, 마 26:41, 골 2:19.
2.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여쭙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비교 수 9:14, 빌 4:7-8.

X. 말씀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엡 3:2.
- B.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첫번째 전제 조건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이다—아 1:4.
- C.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행 6:4
 1.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께 간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이다.
- D. 말씀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 쉬고, 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내쉬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와 연구와 암기와 신언함(PSRP)의 본질이다—딤후 3:16.
- E.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삼십 분이나 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1. 주님을 흡수하고 그분으로 채워진 후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흡수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된다.
 2.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흡수한 주님일 것이며,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비교 출 33:11, 34:29, 35.

XI. 인도를 받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A. 주님의 인도를 받기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접촉하고, 흡수하고, 누려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흡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갖는데, 이 임재가 그분의 인도이다.
- B.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없을 때, 그분의 인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과 똑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출 13:21-22, 14:19-20.
- C.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옳다. 그분의 임재가 없을 때, 모든 것이 그르다

XII.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A.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비교 시 36:8-9, 16:11, 램 15:16, 시 51:12, 사 61:10.
- B.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그분을 위해 일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분을 누리는가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결을 배워야 한다—빌 4:11-13.
- C.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든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고, 거듭해서 흡수해야 한다(시 27:4, 고후 3:18).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얼굴은 빛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영광인가!